

# THE GREAT ESCAPE Traveller

TRAVEL | LIFESTYLE | FASHION | ARCHITECTURE | DESIGN | CULTURE

April 2017

김효진,  
호놀룰루의 낮과 밤

치유의 섬, 하와이 아일랜드  
규슈올레, 봄꽃 따라 걷다  
방콕, 클래식과 모던 사이  
세계 초고층 호텔 4  
또 하나의 건축, 미디어 파사드



보령, 봄이 오는  
바닷길  
봉천동의 진화,  
샤로수길

창간 9주년  
기념 선물 대잔치  
**PRESENT!**

항공권, 세계 최고급  
리조트 숙박권, 국내 호텔  
숙박권 등 총 6천만원의  
선물이 쏟아진다.

## TRAIN TRIP TO WEST JAPAN

서일본 소도시 낭만 기차 여행







## 아난타라 시암 방콕

인천국제공항에서 6시간 남짓 걸리는 비행시간, 트랜디한 감각과 뭉남이 특유의 아국적인 모습이 한 데 섞인 방콕은 도심 속 휴식을 꿈꾸는 이들에게 제격이다. 겨울의 끝자락 짙은 휴가로 주저 없이 타이 방콕을 선택했다. 온전한 쉼을 위한 여행이었기에 머무는 곳이 가장 중요했다. 서양에선 일찌감치 휴양지로 주목했던 타이 방콕에는 메리어트, 힐튼, 세인트 레지스 등 전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브랜드가 오래전부터 자리했다. 그중 2015년 오픈한 아난타라 시암 방콕Anantara Siam Bangkok이 눈길을 끌었다. 타이 여행의 중심인 시암 지역에 자리한 이 호텔은 본래 포시즌스 호텔 방콕으로 운영되던 것을 개조했다. 6성급 럭셔리 호텔이라면 새로운 이름을 달며 대대적인 리뉴얼을 할 법도 한데, 이곳은 포시즌스 호텔 방콕의 인테리어를 고스란히 남겨두었다. “2012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방콕을 방문했을 때 이곳을 선택했어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서비스를 지녔으면서 타이다운 모습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체크인을 하며 만난 호텔 담당자는 천장을 가리켰다. 파스텔 톤의 분홍색 하늘색 배경에는 동양적 문양이 화려한 금박으로 수놓여 있다. 모두 장인이 손수 실크로 타이 전통 문양을 입힌 것이다. 이 자리에 호텔이 들어선 게 49년째다. 1978년 파난술라 호텔로 문을 열어 1992년 포시즌스 호텔로, 그리고 다시 아난타라 시암 방콕으로 변모했다. 이름이 바뀌는 동안에도 공간은 변치 않았다. 담당자는 호텔 곳곳에 남아 있는 옛 그림과 장식에 얽힌 스토리를 풀어냈다. 호텔 자체가 하나의 유적지 같았다. 객실에 들어서자 요즘 생기나는 호텔에선 볼 수 없는 목직만 원목 책상과 타이 전통 그림이 그려진 벽면, 아국적인 색감의 실크 베드 러닝이 보였다. 오래된 디자인이었지만, 어느 하나 낡았던 인상이 없다. 인테리어는 클래식하나, 서비스만은 세련되었다. 투숙객에게 대어해주는 스마트폰을 객실에 비치한 것이 그 예로, 스마트폰에는 방콕 지하철 지도 앱과 여행지 추천 앱이 깔려 있다. 객실에 짐을 풀어도 채 호텔 로비에서 이어지는 중정으로 향했다. 중정에 자리한 레스토랑과 바, 숲은 호텔 투숙객뿐만 아니라 방콕 로컬에게도 인기가 좋은 편이다. 그중 타이 레스토랑 스파이스 마켓 Spice Market은 로컬이 가장 맛있는 타이 레스토랑으로 손꼽는 곳이다. 예약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곤 가게 맞은편에 있는 바 아쿠아Aqua에서 오이 슬라이스가 들어간 아쿠아 모히토 한 잔을 주문했다. 개울처럼 흐르는 인공 연못과 열대 식물로 둘러싸인 자리에 앉아 병풍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청명했고, 모히토의 민트 향은 상쾌했다. 식전주로도, 여행의 시작으로도 제격이었다.

LOCATION Rakchadmit Rd., Thanon Rakchadmit, Khwaeng Lumpini, Khet Pathum Wan, Krung Thep Maha Nakhon 10330 Thailand TEL +66-2-126-8866 WEB [siam-bangkok.anantara.com](http://siam-bangkok.anantara.com)

1 클래식한 고가구로 이뤄진 객실에는 타이 전통 문양이 그려진 소품들이 놓여 있다. 2 타이 전통과 서양의 클래식한味が 공존하는 로비. 3 이탈리아 요리를 만드는 비스킷터. 4 스파이스 마켓에선 타이 요리를 맛볼 수 있다.

## + MUST DO

### 다국적 요리로의 여행

아난타라 시암 방콕에는 총 6개의 레스토랑이 있다. 스테이크 하우스 웨딩홀Adson, 일식집인 스키어Shenan, 이탈리아 레스토랑 비스킷터Biscotti, 지중해식과 타이식 스페셜 요리를 제공하는 테라스The Terrace 등 취향에 따른 선택지가 다양하다. 그중 다국적 요리를 웨딩홀로 운영하는 샤페이 브랜디Shapley Brandy는 시암의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시푸드와 샐러드가 유명하다. 타이의 길거리 음식 문화를 변형하고 고급스럽게 변신시킨 것으로 타이 음식을 포용해아시아인 푸르기가 주목 이룬다. 스테이크를 먹은 후 포아송에서 에요르티를 아삭아삭하게 먹는다. 여기에 딸기 크림을 곁들인 한 입 크기의 디저트 샌드위치도 나오는 것으로, 영국에서 먹는 에요르티와는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 스파이스 마켓에서 타이 요리 먹기

로컬이 추천하는 타이 레스토랑 스파이스 마켓, 포시즌스 방콕이 운영할 때부터 자리했던 곳으로 세프 수파논 키라나Supanet Kharanah이 총괄을 맡았다. 그녀는 전통 타이 요리를 근원하게 재해석한 인도로, 전통적인 타이 스파이스와 요리법을 사용하며, 여기에 타이 요리만 발효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재료들을 넣는 것이 특징이다. 메뉴는 크게 스테이크와 메인 디시, 디저트 등으로 나뉘며, 단품 주문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여행이 간단해질수록 하나의 주문이 함께 찍는다. 매우 맛있었다. 최고의 특별 메뉴 고기까지 나온다. 타이 요리를 비롯해 전 세계 요리를 맛볼 수 있었다.

### 심신을 치유하는 아난타라스파

자연 재료로 만든 스키어음욕은 천연기념물인 아난타라 스파의 최대 명성이 높다. 아난타라 시암 방콕 내에 있으며, 야외 양식 내해 또는 스페 시로와 달리 열대 숲을 고스란히 감싸는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공간을 채운 아국적인 물과 타이 연꽃, 아난타라 스파에서 해초를 불려낸다는 곳의 향기가 차분 심신을 이완시켜준다. 타이 전통 마사지를 비롯해 취향에 따른 선택지가 있다. 그중 시암 요리는 오직 아난타라 시암 방콕만의 요리명이다. 타이,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중국과 태국 요리가 모두 선인 시암 전통 요리가 기술을 이용해 불려낸 것을 직접 요리 풀어주는 것이 특징이다.